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론, 13차, 체계학, 그리스도의 신성, 히브리서 1장, 5 가지 증거, 그리고 다른 텍스트들, 본질과 제목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체계학, 그리스도의 신성, 히브리서 1장, 5가지 증명, 그리고 다른 텍스트, 본질 및 제목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로 그리스도 교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공동 집필한 책을 언급하고 싶은데,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이 옳기 때문입니다. 책 제목은 *Jesus in Prophecy, How the Life of Christ Fulfills Biblical Predictions*입니다. 저의 목사이자 학자 목사인 벤 리스와 저는 이 책을 구도자와 새로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이 책은 복음을 매우, 매우 명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간단한 산문으로 쓰여 있고, 일종의 우리 마음의 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광고하는 데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로열티를 받으면 우리는 이익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돈을 다시 더 많은 책을 사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러 권의 책을 편집하고 썼습니다. 저를 구글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 마음에 있는 부담은 예언 속의 예수입니다. 물고기와 같은 ICHTHUS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기독교 약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2, 4의 맥락을 다루었고, 이제 우리 주님의 신성에 대한 다섯 가지 위대한 역사적 증거를 옹호하고, 홍보하고, 논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선, 그는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 각각에 대해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교리를 논의한다면, 우리는 그가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런 다음 그는 신성한 사람이며, 그는 신이라고 말할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신성을 주장하기 위해 논증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신성을 속삭이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외칩니다. 생각해 보면 말이 됩니다.

복음은 내가 믿고 그의 사역을 사랑하며 그와 그의 사역을 기뻐하는 성령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첫 번째 역사적 증거는 그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의 본성의 정확한 각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주를 반대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각 그림으로 하나의 근본적인 진실과 두 개의 보조적인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두 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태양과 광선이 나오고 조명이 비추는 세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1세기 방식으로 동전을 주조하는 모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두 그림 모두 세 가지 진실을 전달합니다.

히브리서 1장의 맥락에서 주요 진리는 계시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평등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종속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아들은 광선, 빛나는 것에 비유됩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또한 광채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남. 하늘에서 바라보는 하늘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태양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들은 당신이 태양을 너무 오래 응시하면 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태양에서 나와 우리 눈에 도달하는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광채, 빛남,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태양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무엇보다도 신을 계시하는 분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광선은 태양이며, 길게 뻗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달하는 광선은 우리 눈을 때리는 태양의 빛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맥락에서, 그것이 주요 요점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계시의 중재자보다 우월하고, 선지자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우월합니다. 그는 계시자입니다.

태양, 태양을 알리는 광선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 이미지에서 분리할 수 없는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선은 태양이며, 길게 뻗어 있고 드러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의 연합이 함축되어 있으며, 그 영광은 하늘의 태양으로 묘사됩니다. 셋째, 구별이 있습니다. 종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태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응시하면 망막을 태워서 실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아는 것은 태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계시, 맥락상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의 동등성입니다.

아버지 에 대한 종속 . 우리는 나중에 이 종속이 기능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컬트의 흑독한 오류에 대해 말하면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컬트들은 온갖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어떤 컬트는 레위기의 진리인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이유로 수혈을 거부합니다.

터무니없고 치명적이에요. 그 나쁜 해석 때문에 수혈을 받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 하지만 예수가 신이라는 걸 부인하는 건 비난받을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가 누구인지를 바꾸나요? 그게 그가 누구인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천사나 단순한 인간으로만 여긴다면 어떻게 구원을 위해 그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절대적으로 아래에서 시작하는 그리스도론 의 문제입니다 . 그들은 결코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단순히 신격화된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죄인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심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것은 그것이 암시된 동등성 중 하나일 때 그것을 암시합니다 . 광선은 태양과의 homoousios 입니다 . 그것은 빛나는 태양입니다.

같은 물질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것은 실제로 자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동전이 주조되는 이미지입니다.

태양은 신의 본성의 정확한 각인입니다. 본성이라는 단어는 배교 입니다 .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그 신학적 논쟁에서 사용된 것과 다르게 사용됩니다.

여기서, 그리스어 신약 표준 사전 어휘에 따르면, 그것은 본질적인 본성, 존재,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그것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론 신약은 단지 기능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연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오, 대체로 기능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는 신의 아들을 묘사하기 위해 자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말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입니다. 그것은 동전 주조의 이미지입니다.

1세기 세계에서는 부드러운 금속을 주사위에 넣었습니다. 망치로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사위는 자연이나 본질이라는 단어이고, 정확한 각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째, 데나리우스라고 합시다. 데나리우스 동전은 데나리우스 주사위의 각인입니다.

즉, 맥락에서 주요 아이디어는 계시입니다. 그 현대적 맥락에서 니켈 주사위에서 10센트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유사성이 빛을 냅니다. 유사성이 유사성을 냅니다.

그러므로 데나리온은 데나리온의 죽음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본질적 본성의 정확한 각인입니다. 둘째, 함축적으로, 좋은 함축적으로, 데나리온과 주사위는 동일합니다.

그들은 같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된 것은 천사나 단순한 인간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신성한 본성이나 본질의 정확한 각인입니다.

예수는 신의 본성을 지녔습니다. 신을 신으로 만드는 것은 신의 아들 자신의 특징입니다. 물론 세 번째 요점은 다시 한 번, 구별입니다.

데나리온은 주사위가 아니라, 마치 각인되고 드러난 주사위입니다. 히브리서 1장 외의 다른 구절들, 다섯 가지 증거 각각에 대해, 저는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의 대표적 구절, 우리의 기본 구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우리의 기초적 구절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아는 신약에서 다섯 가지 증거가 모두 한 본문에 존재하는 유일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조금 살펴본 골로새서 2:9에서 그것을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아들에 대해 배웁니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영에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적 형상으로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는 신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질 또는 본성 그 자체입니다. 이런 장소, 이런 종류의 장소가 성부를 감동시키고, 성부가 니케아에서 아들이 아버지 와 동질적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성 또는 본질 또는 본질적 존재입니다.

예수는 신의 본성을 지녔습니다. 성육신한 아들도 그에게 부여된 칭호, 신성한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주장은 이러한 칭호가 항상 신에게만 사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사용되기 때문이며, 저는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언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주장은 그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었고, 그것들이 신성한 칭호라는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kurios* 는 노예를 둔 인간 주인들이 꽤 규칙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부모와 자녀에게 말하는 가정법에서 그는 주인과 노예에게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곧 성육신한 아들에 대해 사용될 때는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주님, 당신, 대조는 천사와 아들, 천사와 아들, 앞뒤입니다. 주님, 당신,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은 당신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시편 102편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창조주 이십니다 .

다시 한번, 창세기 1:1은 시편 102편을 통해 중재되어 신약에서 그 자체로 느껴집니다. 시편 102편은 창세기 1:1을 묵상합니다. 주님, 당신은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태초에, 창세기 1:1, 그리고 하늘은 당신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있고 태초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에서 시편 102까지에 대한 꽤 좋은 암시입니다.

다시 말해, Lord의 이 용법은 창조주 Lord입니다. 즉, 신성한 칭호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공관복음서의 그리스도론은 대체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바울복음, 히브리서에서처럼 대담하게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암묵적인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매우 암묵적인 그리스도론입니다. 마가복음 12:37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난제에 빠뜨려 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서기관들이 약속된 자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그리고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분명히 누군가의 후손은 인간입니다.

다윗 자신이 성령 안에서 선포했고, 그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두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주는 야훼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명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왕인 다윗이요, 맞죠? 다윗은 두 명의 주인이 없습니다.

그는 하늘에 신이 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는 주님입니다. 땅에서는 작은 L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 명의 주인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편에 앉아라 . 우주에서 가장 큰 영예와 권위의 자리,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두기까지. 예수께서는 시편 110:1을 해석하여 원수들의 마음을 날려버리셨습니다.

이제,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들은 모두 동의합니다 . 그는 사람입니다. 글썄요,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는 일은 실제로, 초기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의 두 본성에 대한 신비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약속된 자를 부릅니다. 그는 다윗의 오는 자를 다윗이 말하는 자로 부릅니다.

또한, 4절의 그 시편에서 그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는 자에 대해 꽤 많이 말합니다 . 그는 다윗의 주님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 싸우시고 그의 적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는 멜기세덱의 이 계열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저거 뭐야?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가득하고, 아마도 아주 소수이거나, 아니면 유일무이한, 전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순수 메시아 시편 중 하나일 수도 있겠어. 아주 특이하네. 다윗 자신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잖아.

그가 어떻게 그의 아들인가? 다윗 자신은 그의 주님을 신으로 여긴다. 그가 어떻게 단순한 사람일 수 있는가? 여기서 주님이라는 칭호는 오는 자에게 사용되었고, 예수는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적들도 이해했다.

그들은 그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큰 무리가 그의 말을 기쁘게 들었고, 통치자들은 이를 갈았지만, 그들은 그에게 질문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빌립보서 2:11, 우리는 두 상태의 첫 번째 부분, 위대한 두 상태 구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피상적으로라도 굴욕을 가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더 많은 것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분은 승영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빌립보서 2:9),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셨으니, 예수의 이름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살펴볼 시간이 없지만, 그것이 정말로 모든 무릎과 모든 혀입니까?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그것이 보편주의입니까?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틀렸습니다.

배경은 이사야 45장인데,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모든 혀가 야훼께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것이지만, 그들 중 일부는 그가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의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단어들과 함께 일할 것이지만, 그것이 그 단어들의 의미입니다. 즉, 모든 인류가 종말에 그리스도 앞에 절할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을 것이지만, 모두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이들,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을 위한 경배하는 마음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사야 45장은 끝 부분에서 그런 종류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것은 강요될 것이고, 그들이 거부한 사람과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확실히, 이것은 이 맥락에서 신성한 칭호, 주님입니다

그는 심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서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했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붙잡을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을 때, 그는 붙잡으려고 고집하지 않으셨던 영광입니다.

그는 영원 전에 아버지여, 나는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내가 주님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것은 옳았을 것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의 권리인 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낮추셨고, 비록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셨지만, 그는 노예의 형상을 취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셨으며, 죽음의 지점까지, 심지어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그가 자신의 주권에 대한 보편적인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는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종이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을 때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왕족의 칭호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요, 솔로몬과 다른 다윗 왕들은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그것이 왕족의 칭호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한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가질 것이고, 당신의 아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와우. 그녀는, 엘리사벳이 말했듯이,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방문합니다.

그것은 마리아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녀가 경건한 종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데려오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톨릭 마리아론에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5장은 가볼 만한 좋은 곳입니다. 예수께서 38년 동안 걷지 않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의 치유와 사도들의 치유의 놀라운 점은, 글썄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합니다. 그는 영광을 얻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께서 그의 이전 책에서 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일들에 대해 기록했고, 그 의미는 이제 그가 사도행전에서 그의 사도들을 통해 그의 성령으로 계속 행하고 가르치신 일들에 대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권의 책이고 저자는 루가 10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온전해진 것은 우리에게 의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절름발이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고쳐 주셨다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고 말한 것이 맞죠? 그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는 38년 동안 절름발이였던 사람을 고쳐줍니다.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꽤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께서는 토요일에 그것을 하셨고, 자비로 지도자들을 고의로 대적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그들에게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몇 퍼센트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6장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 모두가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6명. 많은 사람들, 심지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조차도 그를 믿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들에게는 반문화적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어쨌든,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남자를 고치셨고, 그것은 유대인 지식인과 지도부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 예수는 성전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를 찾아냈습니다.

보세요, 당신은 건강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더 나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한편,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어서 그가 눈먼 채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병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그는 죄가 육체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남자는 떠나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좋은 움직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고친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였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는 악의가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순진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 아마도 그들은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할 것이다.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있어요.

왜? 그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내가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 복음에서 그는, 나는 안식일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신의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18절에서 다음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신의 아들이 신성한 칭호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언어로, 제 아버지는 오늘까지 일하고 있고 저도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절름발이를 치유하신 일을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와 동등하게 여기셨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지혜, 유머, 넌센스, 온갖 종류의 일들이 담긴 매혹적인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성서보다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제 아버지는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랍비들은 좋은 주님이 토요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내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그들은 말했다, 그는 세상을 계속 돌아가게 한다. 신은 토요일에 그의 섭리를 멈추지 않는다. 아니면 세상이 멈출 것이다.

게다가 유대인 공동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아기들은 일주일에 7일 태어났습니다. 토요일에 태어난 아기들을 다른 출처에 돌릴까요? 아니요. 신은 일주일에 7일 동안 섭리로 일하셨습니다.

신은 일주일에 일곱 날 동안 아기의 탄생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노인들도 토요일에 죽었습니다. 신은 토요일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 배경, 랍비들이 이런 것들을 토론하면서 나중에 탈무드 문헌에 자리 잡은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런 종류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신성한 일, 그들은 하나님께서 토요일에 하셨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8절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더욱 애썼던 이유입니다.

그는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38년 동안 절름발이였던 사람을 토요일에 고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지 않은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들은 오지 스미스가 했던 것처럼 백플립을 해야 했다. 왓, 세인트루이스에 대한 언급이 여기서 몰래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을, 아브라함의 아들이 치유된 것을 하나님께 찬양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 안타깝습니다.

아, 아니. 그들은 잔소리꾼이야. 토요일에 그를 치료하면 안 돼.

하지만 그들은 또한 예수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친밀한 의미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며, 적어도 많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훨씬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 저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름발이를 치유하는 일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섭리적인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하게 만들었는데, 물론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는 아들을 신성한 칭호로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칭호에 대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에서 아들이 신성한 칭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선지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대조적으로, 이 마지막 날에

그는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신 아들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그 자리를 차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그분은 또한 그에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는 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의 영광의 광채이고, 등등. 그래서 1, 2에서 우리는 신성한 방식으로 사용된 아들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1:8에서 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천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들에 대해, 그는 시편 45, 6, 7을 인용하여, 당신의 보좌는 영원무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신성한 칭호로 사용됩니다. 물론, 아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그것이 바로 그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은 신성한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한 칭호입니다.

사람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는 큰 곤경에 처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매혹적인 그리스도론적 칭호입니다.

1번은 예수가 가장 좋아하는 자기 명칭입니다. 2번은 항상 3인칭으로 사용합니다. 그는 결코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진보주의자들은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와, 맞아요.

세계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신약성서의 자료는 다양해요. 예를 들어, 새는 둥지가 있어요.

여우는 굴이 있고,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며, 약하고, 연약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하늘 구름 속에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신성한 인자입니다. 알아요? 그 두 가지 계시의 줄기는 구약에서 나왔습니다.

시편 8편은 전자의 생각입니다.

당신이 준비하신 하늘을 바라볼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를 염두에 두시는 작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를 돌보시는 인자의 아들입니다.

약하고, 인간적이고, 인자죠? 다니엘 7장에서 인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고, 경배는 그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둘과 관련된 구절을 인용합니다. 훨씬 더 복잡하지만, 그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성, 그의 비천한 인간성, 그리고 그의 위대한 신성이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3인칭으로 자신을 언급하며, 적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메시아적 비밀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에서 와서 "나는 메시아다, 와서 나를 데려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승리의 입성은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있었고, 그것은 그의 십자가형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한복음 2장에서 그가 그렇게 할 때, 그는 카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마리아를 그녀의 자리에 부드럽게 앉히고, 마리아, 나는 아버지의 어머니를 따라야 해라고 말합니다. 여자라는 단어는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요한복음까지 십자가에서 그가 사용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존, 네 어머니를 보라. 여자여, 네 아들을 보라. 그는 어머니에게 비꼬는 걸까? 아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기 당신의 것이 있습니다.

존이 당신을 돌볼 거야, 내 사랑하는 제자야. 비슷한 방식으로, 하지만 그는 그녀를 제자리에 앉혀. 어머니, 나를 주목 받게 하지 마세요 .

지금은 아버지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는 요셉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살아 있는 한 좋은 계부인 듯합니다. 아니요, 요한복음 7장에서도 비슷합니다.

그의 형제, 심지어 그의 친형들조차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마술사여, 초막절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멋진 속임수를 보여주세요. 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하세요.

세상은 당신을 미워할 수 없어요. 당신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요. 오, 형은 여기서 강인한 놈이에요. 저는 잔치에 가지 않을 거예요.

의미는 이 때입니다. 그는 중간에 비밀리에 올라가서 그의 정체성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만, 여전히 여러 번 소위 메시아적 비밀을 치유하는데, 그것은 자유주의자들의 손에 꼼짝하게 남용되었습니다. 그 생각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병을 고치고, 가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때때로 그렇게 했고, 때때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7장에서 앞서 강의한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유대에서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승리의 입성은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의 삶과 사역의 후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64의 인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그리고 산헤드린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는 그에게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미는, 나는 그렇다는 것이다. 약간 비스듬히 대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은 것을 볼 것이다.

우회적 표현, 구약과 신약 사이에 흔히 쓰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오, 대제사장은 다니엘 7장의 언어를 이해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의 신성모독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가 죽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사용하신 신성한 칭호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실제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신, 주님, 인간의 아들, 신 그 자체라는 칭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1, 18에서 그를 두 번이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 곁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과 함께 포함이나 다른 책받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는 이러한 책받침, 이 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함은 물론 문학 단위의 두 끝에 같은 단어나 개념이 나타나는 비유입니다.

한 구절만큼 작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콜로새서 1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니면 요한복음처럼 전체 문서만큼 클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장에서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없었던 도마가 이번에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와 그의 손에 놓지 않는 한, 믿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그렇죠? 예수는 호소하고 그에게 나타납니다. 도마는 그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리스어로는 그가 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는 켈트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나는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켈트에 대한 사역을 할 학생 한 명 이상을 일으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마지막 몇 년 동안,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것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 이끌렸습니다. 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리스도께 왔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능한 학생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학생 중 하나였나요? 아니요.

하지만 알아요? 신이 그녀에게 손을 얹었고,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케이티는 전 남부인들에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실례합니다. 전 크리스천 과학자들이죠. 아, 정말 끔찍한 실수였네요.

케이티는 전 크리스천 과학자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훌륭하게 사용하십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제 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잊지 않는 겸손하고, 다정하고, 지적인 여성을 사용하심으로써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녀는 기독교 과학 고등학교인 Principia High School 캠퍼스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를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물론 예수가 신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컬트에는, 글썬요, 메리 베이커 에디의 과학과 건강과 성경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녀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성경은 없지만, 소위 여호와의 증인의 오역은 그가 오, 세상에, 토마스가 오, 세상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는 오 마이 갓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어 본문에 따르면 토마스는 그에게 이것은 천국으로 가는 별칭 디저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인 도마는 그를 위해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께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두 가지 신성한 칭호가 있습니다. 이 큰 포함의 두 번째 부분은 1장에서 예수의 신성에 대한 두 가지 언급입니다.

요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숨기지 않습니다. 장마다, 특히 처음 12장에서 그것을 외칩니다. 세상에.

예수는 그가 사용하는 신성한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단논법입니다. 어떤 칭호들은 신이 신성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주님, 사람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에 의해 그런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특정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2, 11, 12는 창조주와 그의 창조물을 대조합니다. 10절 이후에, 주님, 당신은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은 당신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강조, 아들은 하늘과 땅과 하늘을 창조했는데, 시편 102편은 창세기 1장, 즉 땅과 하늘의 순서를 뒤집습니다. 11절, 하늘과 땅은 멸망할 것이지만, 당신은 남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과 겹옷처럼 낡아질 것입니다.

너는 그들을 옷처럼 말아 올릴 것이다. 그들은 변할 것이지만, 너는 동일하며, 네 세월은 끝이 없을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시적인 하늘과 땅과는 대조적으로, 하느님은 마지막 날에만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늘과 땅은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이다.

지금의 하늘과 땅은 새롭게 될 것이다. 깨끗이 하고 새롭게 될 것이다. 반면에 아들은 똑같고 그의 세월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불변성의 신성한 속성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여러 가지 중요한 면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는 의미에서, 실제로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는 의미에서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불변성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변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나,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멸망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서, 움직이는 그림자와 인간의 불신앙과 대조적으로,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성격, 그의 궁극적인 계획과 뜻, 그리고 그의 방식에 있어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그것을 부르고 싶다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로 충족되면 그것을 보류하는 것 등에서, 변합니다.

이것은 단지 불변성의 속성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주고받는 관계를 맺기로 선택한 무한한 인격체라는 것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 그는 관계의 주님이시며, 그는 주권자이시지만, 실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첫 번째 두 가지 신비, 즉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기독교 신앙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정말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적인 신의 주권과 진정한 인간의 책임 사이의 나만의 칼빈주의적 양립주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똑같이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당신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칼빈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형을 노예로 팔면서 요셉을 끔찍하게 반대할 수 있었는지는 신비합니다. 그것은 병적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에서 나온 동일한 말로,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여기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긴 이야기지만, 그는 결국 파라오라는 2인자가 되어, 심지어 자신의 가족을 구하고, 그의 추잡한 형제들도 구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여기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신이 데려왔습니다. 글썄요, 알아요? 신이 그를 여기로 데려왔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인간적으로 책임이 있었고, 심지어 유죄였습니다. 오, 그의 미친 어린 시절 꿈이 이루어졌고, 그들은 그에게 절을 합니다. 나중에, 그는 당신이 그것을 악한 목적으로 의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만, 신은 그것을 선으로 의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의 은총을 마셔서, 세상에,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의문이나 반발 없이 그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신의 은총을 알았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들이 가진 것과 아는 것에 대한 삶에 겸손해졌을 뿐만 아니라 질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과 비교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와우. 나는 그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의 형제들 앞에서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았지만, 그의 유치한 과잉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와, 정말 대단하네요. 신성한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은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유죄입니다.

하지만 같은 의미에서, 신은 자신의 섭리와 주권으로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을 가져왔습니다. 빈 무덤과 함께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의 주권과 책임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개변수를 정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비와 마찬가지로 성경적 확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권자이시며,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대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책임감이 있고, 책임질 수 있고, 유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오, 신은 실제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극단적인 칼빈주의입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신은 기도에 응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신이 응답하고, 찾을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 저는 당신에게 부분적인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칼빈주의이긴 하지만, 제가 지어낸 게 아니지만, 슬프게도 복음을 전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기술 서적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때마다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입에서, 대명령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에게서 비롯되지만, 어떻게선가, 역동적인 상호 작용이 있습니다.

아, 내가 찾던 단어가 여기 있군요. 모순, 역설, 신비보다 훨씬 나은 것 같지 않나요? 신의 주권과, 제 생각에는, 인간의 책임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하지만 그것이 신비를 가리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솔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동시에 긍정해야 합니다.

오, 우리는 매개변수를 말했어요. 교부들의 위대한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적 진술과 마찬가지로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성격이 있거든요. 그분은 사람이시죠.

그것은 정지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의 맹목적인 자비, 그리스 운명에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자비에 맡겨져 있고, 팔에 안겨 있고, 아래에 있고,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운명론은 취소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아버지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인간의 책임이 있으며, 그것이 절대적인 신의 주권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예수의 인격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주권자이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쪽에서 우리는 철학자들이 절대적 권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상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인간의 자유와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생물은 창조주의 의지를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숨을 참고 일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신은 주님입니다 . 따라서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운명론을 불법화하고, 그에 반대하는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는 등 , 요셉 의 형제들이 그를 배신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형과 같은 일부 행동은 동시에 신적인 행동이자 인간적인 행동입니다.

가서 설명해 봐. 사실인 건 알아. 부분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어. 즉, 성경에 드러난 또 다른 진짜 미스터리야.

그것은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두 본성만큼 중요한가? 아니요. 내 이해로는 똑같이 신비로운가? 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자질이나 속성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 아마도 가장 큰 증거, 그리고 그가 선한 사람과 선한 천사와 달리 경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체계학, 그리스도의 신성, 히브리서 1장, 5가지 증명, 그리고 다른 텍스트, 본질 및 제목입니다.